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5 조선-3-2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-2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광해군, 중립외교정책 / 호란

광해군

대내) 왜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방력을 강화

* 대동법 시행

대외)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추진

서인은 인조반정(1623)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친명배금 정책을 펼침

->후금의 침입 / 후금-조선 사이의 형제관계 체결 (정묘호란, 1627)

후금,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

조선 내 주화론(최명길)과 척화론(김상헌)으로 나누어 대립

조선이 척화론에 따라 청의 요구를 거부 - 병자호란 발생 (1636)

-> 삼전도의 굴욕 (조선-청 군신관계 체결)

★북벌 vs 북학

북벌(北伐) [청 = 오랑캐]

-호란이후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의리를 지키자는 흐름 등장 (북벌)

청에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와 왕위에 오른 효종은 송시열, 이완 등을 등용

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등 북벌을 준비

-but, 청의 세력이 강해지고 늘어나는 군비로 재정이 악화되자 북벌은 중단

북학(北學) [청 = 배워야할 대상]

-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일부 학자와 지식인 - 북학론 제기

-특히 박제가) 무역선을 파견하여 청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무역에 참여해야

한다고 주장 - 개화사상으로 계승됨

★조선의 세계관 변화

과학기술이 전해짐 from 청

-자명종, 천리경,

곤여만국전도(세계지도),

cf.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

시헌력 (서양역법)

-실학자를 중심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이

'중국 중심의 세계관'에서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침

-이익, 지구는 둥글다!

-홍대용, 지전설

+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멸망한 명을 대신하여 조선을 중화

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유일한 나라로 보는 시각 (소중화의식)

-우리 역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여 국학연구가 활발해지게 되는 계기.

역사) 안정복, 『동사강목』 - 한국사를 체계화

한글) 윤희, 『언문지』 - 한글의 우수성

지도) 김정호, 대동여지도

영화, 광해

영화, 소설, 남한산성

소설, 박씨전

송시열

우리나라의 풀 한 포기나 나무 한 그루,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는 바 아님이 없습니다.

윤휴


우리나라의 정예로운 병력과 강한 활숨씨는 천하에 소문이 난 데다가 화포와 조총을 곁들이면 넉넉히 진격할 수 있습니다.

박제가

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우면, 그 법이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이 장차 취할 것이다.

박지원

우리를 저들과 비교해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.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'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'라고 말한다.

	한국사	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15 조선-3-2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-2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★연행사 / 통신사

왜란과 호란이후

조선은 청에 - 연행사

일본에 - 통신사

파견. 평화유지, 경제, 문화적 교류를 이어감.

조선-청 : 조공-책봉 관계

연행사는 청의 발전된 문물과 청에 들어온 서양 문물을 조선에 전하는 통로역할

조선-일 : 일본의 에도막부가 조선에 국교재개 요청

기유약조 체결 - 제한된 무역 허용, 통신사 파견

통신사는 외교 사절의 역할, 양국 문물 교류에도 기여

★백두산정계비 / 안용복 - 독도

간도

청-중국을 차지한 뒤 만주지역을 성역화, 출입통제

조선인-두만강, 압록강을 건너 산삼을 채취하거나 사냥을 함

청과 조선이 양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

'백두산 정계비'를 세움 (1712)

독도

조선후기, 일본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

숙종, 안용복 - 일본어민을 내쫓고 일본까지 건너가

울릉도,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음

이를 계기로 조선정부는 일본의 에도막부와

울릉도 및 독도 귀속문제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함.